

전남 단체장·공무원 선거개입 논란

영암선관위, 김일태 군수에 '정치적 중립' 공문

무안군 일부 공무원, 보선후보 소개·안내 빈축

오는 4·11 총선과 기초단체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과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공무원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9대 총선 강진·영암·장흥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황주홍(무소속) 전 강진군수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황 전 군수를 지지

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 김 군수는 출판기념회 과정에서 김옥두 전 의원의 축사 도중 단상에 올라가 김 전 의원, 황 전 군수, 이명희 장흥군수와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가 되겠습니까? 황 예비 후보에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동참해 황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청받은 차지 단체장은 김 군수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김 군수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에 위반될 수 있다"며 "차지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때문에 향후 선거의 공정성 보장차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무안군청 일부 간부 공무원

들이 지난 9일 오전 4·11 무안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를 데리고 군청 각 부서를 둘러 직접 소개해 공무원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청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기관을 방문하는 데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각 부서에 인사 소개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공무원은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엄정한 선거 중립의 자세가 요구되는 만큼 놀라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선거기간에는 특별히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동행한 한 간부공무원은 "A씨와 기준에 알고 있는 사이인데 다른 후보자들이 무안군청을 방문해 각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가 과열되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더 들어날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일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지구인 전국 4개 도시 가운데 인근에 재래시장이 없는 울산역을 제외한 동대구역과 익산역 인근은 SSM 규제를 이미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결국 규제가 다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 역시 조례 개정보다는 전통시장 대책이나 상인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을 갖 넘긴 시점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영세 상인을 외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광산구 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의 상정 및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e@

광산구 'SSM 조례' 개정 추진 말썽

"1년전 제정해 놓고 뒤집다니..." 영세상인 반발

구 "송정역 환승센터 민자유치 걸림돌 불가피"

광주 광산구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1년 전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규제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민간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5000억 원 규모의 환승센터 중 민

간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00억 원에 달하는데 교통·쇼핑·문화공간으로 구성될 환승센터가 'SSM 진입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일대 개발에도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이다.

광산구는 지난 2010년 말 전국 기

선관위 허파 또 디도스 공격

중앙선관위위원회 홈페이지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에 이어 지난 8일과 9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15시30분께 선관위 홈페이지에 초당 약 89Mbps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왔고 다음날인 9일 오후 7시께에도 초당 90Mbps 정도의 트래픽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서해안 토스카나 제도에 떨린 질리오 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의 선체의 모습.

민주통합 '全大 돈봉투' 수사 촉각

고발장 접수에 수사 협조 "물타기 악용 해선 안돼"

민주통합당은 검찰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된 것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일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먼지털이식 수사'는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유경 대변인은 지난 13일 "(검찰 수사와 관련)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면서도 "나만 만신창이가 된 우리나라 당의 상황에 물 타기 하거나 정략적,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의 전모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밝혔다.

조 수석비서관은 박희태 국회의장

기 시작했다"며 "박 의장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퇴하고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을 설명하는 약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준비, 눈길을 끌었다. 동영상은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BBC'는 누구의 회사인가'라는 내용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뉴스 화면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지면서 백드롭(대형 배경 그림)으로는 비리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 동영상 만들었다"며 "한나라당은 대검찰청 산하에 측근비리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檢,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 출금

고명진 전 비서도 곧 영장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부장검사)는 당시 박

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5일 확

인됐다.

조 수석비서관은 박희태 국회의장

이 현역 의원이던 시절부터 20년 이상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전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조 수석비서관이 금품전달 지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고명진 전 비서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친환경 축산농가 무조건 지원 가능

도축사시설 요건 완화

정부가 한미FTA 대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대책의 신청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요건이 완화된다.

전남도는 축사시설 지원 사업의 사용규모 등 지원자격 규정에 대한 일부 지침을 변경해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사육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도 전업농으로 규모를 확대하면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사료비 절감을 위해 소 100마리 이상 사육하거나 3농가 이상 범인을 구성한 2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는 5000만원까지 자가배합사료(TMР)

제조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닭·오리 농가는 폐사축 처리시설 2000만원, 방역시설 2억원이 지원되고 2000만원 한도까지 사료배합기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금 지원방식도 사육 규모를 기준으로 전업농과 기업농으로 구분해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위도 넓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더로 많은 농가에 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일에 이어 지난 8일과 9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오후 15시30분께 선관위 홈페이지에 초당 약 89Mbps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왔고 다음날인 9일 오후 7시께에도 초당 90Mbps 정도의 트래픽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서해안 토스카나 제도에 떨린 질리오 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의 선체의 모습.

伊 크루즈선 전복 한국인 35명 구조

이탈리아 당국이 좌초한 유람선의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여 15일

(현지시간) 유람선 안에서 승무원 2명을 비롯해 모두 35명의 한국인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한국인은 모두 29세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이탈리아

안사뉴스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통상부는 좌초된 유람선에서 승무원 2명을 비롯해 모두 35명의 한국인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했다.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즐기던 한 국민 부부는 아래쪽 선실에 갇혀 있

었는데 선실을 하나님 뒤집어 구조된 원들이 이들이 낸 소리를 듣고 1시간 30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4200명이 탑승한 코스타 콩코르디아 이후에는 금요일인 13일 저녁 이탈리아 서쪽 근해에서 암초에 부딪혀 전복됐으며 3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실종됐다. 현지 경찰은 프란체스코 스케티노(52) 선장이 모든 승객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버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주의 출전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영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